

# 강화 환경농업농민회 이야기

김 정 택 (목사, 강화환경농업농민회 대표)

## 1. 농촌선교를 사명으로

사람마다 커다란 자기인생의 전환점이 있다. 이를 잘 맞이하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 나에게도 그 전환의 고통이 찾아왔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자본을 신으로 대치한 자본주의를 무너뜨리는 것, 그리고 노동자가 주도하는 민중이 주인 되는 민중의 나라를 구현하는 것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쓰런이 무너지고 동구권이 무너져 버렸다. 우리나라도 군사독재는 물러가고 김영삼 문민정권이 들어섰다. 그럼 이제 나는 어떤 목표를 향해 실천하고 걸어가야 할 것인가? 뼈를 깎는 빈민의 기간이 찾아왔다. 새로운 사명이 주어지기까지는 어떠한 행동도 취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나는 곧바로 가평의 외진 시골집을 찾아 들어가 사고(思考)를 그치고 마음의 평정을 찾고 새로운 사명을 받기 위해 단식으로 들어갔다. 하늘에서든 나의 마음 깊은 곳에서든 내가 알 수 있는 어떤 소리가 들리기까지는 단식을 풀지 않겠다는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단식에 돌입한 것이다. 전에도 단식은 가끔 했다. 투쟁단식도 해보고 건강을 위한 단식도 했다. 그런데 이번의 단식은 나의 존재의 문제로 시작된 단식이다. 10일 쯤 지났을까 나의 어느 깊은 곳에서 수련의 장소를 옮겨라. 농

사를 지으면서 수련하자는 마음이 생겼다. 최종의 답을 얻은 것은  
 아는데 골방에서 사회로 나아가는 첫 실천이 잡힌 것이다. 그것은  
 농사이고 첫 농사는 수련으로서의 농사였다. 나는 더욱 정화되어야  
 하는 것이었다. 흙과 씨름하면 나는 더욱 맑아지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음의 나아갈 길도 보일 것이란 확신이 왔다. 이왕이면 내가 15  
 년이나 활동했던 인천과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고자 하였다. 아무도  
 만나지 않아야 될 것 같았다. 그래서 택한 곳이 봉화다. 봉화에서 농  
 사수련을 하면서 내가 해야 할 농사의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다. 물  
 론 그것은 유기농업이지만 유기농업도 여러 종류가 있는 것을 알았  
 다. 하나는 도사형(道士型)의 유기농업이라고 할까. 소비자에게 판매  
 라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급하고 남는 것은 사람들이 찾아오  
 면 주는 농사가 있다. 또 하나의 농사는 판매가 중심인 유기농업도  
 있다. 소비자에게 판매하여 돈을 버는 것이 중심인 유기농업이다. 나  
 는 중간을 택하기로 하였다. 도사형은 참으로 좋지만 대중은 할 수  
 없고 대중이 할 수 없으면 점으로는 늘어나는 것이지만 면으로 확장  
 되는 사회변혁의 힘은 나오지 않을 것이란 판단이 들었다. 그렇다고  
 돈버는 것이 중심이 되는 농사는 해서는 안될 것 같았다. 정직하게  
 흙과 씨름하고 자급도 하지만 도시소비자의 생명을 위해 직거래도  
 하여 풍족하게 쓸 정도는 아니더라도 가족이 생활하는데는 부족함이  
 없는 유기농사는 되어야 하지 않는가 막연히 생각하였다. 어쩌면 다  
 시금 새로운 운동의 씨앗이 심어지고 싹이 나는 것은 아닌가 나를  
 보게 되었다. 도시에서도 어렵פות이 도·농공동체에 대한 꿈이 꾸어  
 지기는 했다. 그렇지만 그것은 도시에서 농촌을 결합하는 여전히 도  
 시우위의 생각에 기초한 도·농공동체였다. 말하자면 지식에 기반한  
 사회과학의 인도에 따라 노동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자유롭고 진보된  
 도시에 중심을 둔 도·농공동체라 할 수 있겠다. 이것이 다시 농촌  
 에서 시작하는 농도공동체로 힘있게 살아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생명과 상생 그리고 평화로 가는 공동체. 봉화는 왠지 나에게 잘 맞  
 는 지역으로 느껴졌다. 산이 높고 계곡은 깊고 넓은 들이 짙 펼쳐져

있지 않은 것이 도 닦으면서 살기는 좋을 것 같았다. 그런데 수도권과는 너무나 멀다. 지금은 소백산터널이 생기고 현동으로 가는 곳도 터널이 뚫려 1시간은 족히 서울에서 가까워진 것 같은데 그때는 인천에서 가려면 6시간 이상은 걸렸던 것 같다. 수도권 도시의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농사체험이나 생태관광을 위해 올 수는 없고 그저 여름휴가 때나 몇 일 걱정하고 오면 올 수 있는 곳으로 여겨졌다.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수도권에 인구의 반이 집결되어 사는 나라는 없는 것 같았다. 수도권도시의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다른 지역으로 흩어지게 하는 역할과 농도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활동을 시작해야 한다는 각성이 왔다. 그래서 수도권도시소비자를 일상적으로 만날 수 있는 곳으로 택한 곳이 강화도다.

## 2. 현미잡곡밥 먹기 운동

강화도로 이사오면서 나의 마음은 달라져 있었다. 봉화에서는 사람을 만나지 않고 수련에 집중했지만 이미 나름대로의 사명을 띄고 왔기 때문에 강화도로 귀농하면서부터는 도시사람들을 즐겁게 만나기 시작했다. 도시에 있을 때보다 더 많은 사람, 더 다양한 사람들이 찾아 왔다. 역시 강화도는 인천이나 서울 그리고 수도권에서는 참으로 가까웠다. 매일 전에 조금이라도 알던 사람들은 다 들리는 것이었다. 마니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역사, 문화관광도 널려 있으니 이런 관심 저런 관심으로 강화도는 수도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오고 싶은 곳이 분명하다. 많은 사람들을 접하다 보니 요가하면서 올바른 식사법에 대해 연구하던 그 마음이 작동하기 시작한다. 그렇지, 현미잡곡밥을 먹어야지. 백미가 아니라 현미에는 쌀이 가지고 있는 모든 영양이 다 있으니 현미만 먹으면 좋다는 '것은 나에게도 이미 대단한 확신으로 잡혀 있었던 식사법이다. 맛과 꺼칠꺼칠함이 사람에 따라 선택을 하지 않는 문제만 있을 따름이다. 그러면 완전히 쌀겨를 깎아버리는 백미가 아니라 오분도미를 먹어도 거기에는 쌀눈은 살아 있다. 사람들은 매일 오고 이 사람들에게 좋은 식사법을 할 수 있도

록 전파하고 싶은 생각은 나고 그러면 강화도는 쌀이 많은 곳이고 (물론 이 때는 무농약쌀에 초점을 맞추지는 않았다.) 얼마든지 벼로도 쌀은 구할 수 있고 동네사람들의 벼를 사주는 것은 또한 좋은 일이 되는 것이다. 나의 상상력이 드디어 발동하기 시작했다. 그렇다. 가정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조그만 도정기를 구입하면 동네 농민들의 벼도 팔아주고 나를 찾아오는 선후배들은 건강을 보살필 수 있는 현미나 덜 깎은 오분도미를 구할 수 있게 되니 얼마나 좋은가? 여러 가지 이익이 종합적으로 조립되는 것이었다. 그래, 그러면 찾아오는 사람들마다 5만원씩 기금을 내도록 하자. 공기 좋고 바다 좋은 강화도에서 도시에서의 스트레스를 풀고 가면 얼마나 고마워 할 것인가? 5만원은 내가 말만 꺼내면 다 그냥 기부할 판이었다. 나도 뭐 벼는 것도 없는 판에 벼라도 도정해 주면서 우리 가정이 먹을 쌀이라도 떨어지면 시간도 많은데 해볼 만한 일이었다. 도정기 값을 알아보니 130만원 정도 하였다. 130만원을 1인당 5만원씩 모금하면 26명만 모으면 되었다. 돈은 모이지고 도정기는 구입되었다. 보통은 한 달에 한번은 강화도에 놀러 오니까 그때마다 1달 식구가 먹을 양만 도정해 가면 되었다. 그래야 신선도가 유지되지. 그런데 자주 놀러 오던 친구들도 본인의 생활이 바빠진 탓인지 다른 지역관광도 하기 시작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처음에 뻘질나게 놀러 올 때와는 달랐다. 2-3개월에 1번 정도로 변하기 시작했다. 나의 머리도 정황변화에 따라 더 빨리 굴러가기 시작했다. 그러면 인천도시지역의 가까운 동네에 사는 친구끼리 3-4인 그룹을 만들어 3-4개월에 한번씩 들리되 3-4인의 쌀을 가져가도록 하였다. 우리가족만의 생활은 이 운동만 잘 해도 될 것 같았다. 96년 가을부터 시작한 이 운동이 이제 봄이 되면 밭에서 날 야채도 쌀과 함께 가면 될 것 같았다. 쌀로부터 시작하여 밭작물까지 늘어나는 것이다. 1농가가 도시주민 30가구의 건강을 위한 쌀과 야채 등을 공급하고 도시의 30가구는 농촌의 1가구의 생활을 책임지는 뭐 그런 그림이 그려지는 것이었다.

### 3. 청둥오리 벼농사를 시작하다

현미잡곡밥 먹기운동을 시도하다 보니 자꾸만 마음 한구석에 무농약쌀을 취급하지 않고 있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 그렇지만 어떻게 할 것인가? 강화도에서는 유기농업이 없으니 말이다. 내가 시작할 수밖에 없다. 유기농업을 하기 위해 강화도에 왔으니 농사는 질 것이지만 작목 선택은 지역을 고려해서 선택해야 했다. 강화도는 한강의 종착지, 예성강, 임진강의 종착지이기도 하다. 그러니 오랜 기간 폭우가 쏟아지고 하면 육지의 좋은 흙은 흙탕물이 되어 강화도의 이섬, 저섬 사이에 쌓여 거대한 갯벌이 형성되어 있다. 고려 때부터 식량확보를 위해 갯벌은 논으로 변했고 지금은 거대한 평야의 섬이다. 강화도 농민의 생존과 풍요를 도와 준 농사가 벼농사다. 벼농사를 해야 농민으로 인정될 수 있고 대중과 함께 다시 한 번 바닥에서부터 새로운 운동을 하고자 왔으니 벼농사에 덤벼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유기농 벼농사에 대해 공부하고 견학도 하였다. 청둥오리벼농사, 우렁이 벼농사 등 여러 농사 등을 접하면서 나는 청둥오리 농법을 선택하였다. 나의 마음속에 겨자씨의 비유처럼 심어진 농도공동체란 씨앗이 자라는데 협력하는 사업이 어떤 것인가가 항상 선택의 기준이 되었다.

청둥오리농법은 정말 재미있다. 청둥오리 새끼들이 논에서 자유와 해방의 춤을 추며 노는 것을 쳐다보고 있으면 종일 논에 있어도 좋다. 97년 여름, 논에 가다 보니 자가용 한 대가 논 근처 길에 세워져 있었다. 논에서는 세 명의 식구가 신나서 청둥오리에게 말을 걸고 떠들며 먹을거리도 주면서 놀고 있었다. 6월 청둥오리 입식축제 때 참여한 어린이가 집에 가서도 항상 자기가 집어넣은 청둥오리 새끼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하면서 자꾸 가자고 엄마, 아빠를 닥달해서 왔다고 한다. 이렇게 청둥오리 농법은 도시의 소비자와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마침 교동섬에도 노동운동에 참여했던 후배 목사가 목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동의 신자농민 5명하고 같이 시작하였다. 이것이 강화도 유기농업의 첫 시작이었다.

#### 4. 남은 음식물 사료 퇴비화운동

1996년 11월, 마스크에서는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반입저지 사태를 크게 다루기 시작했다. 주민대책위가 악취와 오염을 참을 수 없어 젖은 쓰레기를 반입하는 지자체의 청소차들의 출입을 저지하였다. 저지된 청소차는 다시 돌아 갈 수밖에 없었고 지자체 쓰레기는 도시에 쌓여가며 악취가 진동하였다. 그런데 젖은 쓰레기의 원흉은 음식물쓰레기였다. 이 사실을 접하면서 나의 상상력은 또 발동하기 시작하였다. 농촌에서 유기농업을 하려면 유기질비료가 있어야 한다. 퇴비를 뿌리려면 무게도 무겁고 많이 뿌려야 하니 이를 돈주고 사서 하라고 하면 유기농업 할 농민은 없을 것 같다. 퇴비라도 무상으로 주어져야 하지. 도시의 음식물 찌꺼기가 이를 해결해 줄 것이란 판단이 온다. 농민들은 또 묻는다 생산하면 소비처는 있느냐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도 남은 음식물이 해 줄 것이란 확신이 왔다. 도시의 주민들은 모두 남은 음식물 배출에 있어서는 죄인이다. 농촌에서 이를 퇴비화해서 사용하면 농촌이 도시를 구원해 주는 것이 되고 고마움으로 유기농 생산물을 구입할 것이란 확신이다.

1998년부터 음식물찌꺼기퇴비화운동은 시작되었다. 강화도에서는 귀농자를 중심으로 10인이 닭을 키우고 인천 연수구에서는 몇 개의 아파트부녀회가 조직되어 한 달에 처리비를 천 원씩 농민들에게 주었다. 농민들은 트럭도 한 대 구하고 귀농자 한 명이 운전을 하여 매일 아파트단지에서 음식물찌꺼기를 실어 왔다. 그냥 가공하지 않은 음식물을 그대로 닭에게 주는 것이었다. 이렇게 해서 생산한 계란은 다시 그 아파트단지 부녀회를 통하여 판매하였다. 정말 그야말로 농촌-도시순환공동체가 보이는 듯 했다. 도시아파트에서는 음식물찌꺼기를 귀하게 배출하고 농촌에서는 이를 닭의 사료로 사용하고 생산된 달걀은 다시 아파트주민에게 돌아가니 완벽한 농도순환공동체가 아닌가? 나는 이를 대농도순환공동체라 했다.

소순환공동체도 필요하였다. 일종의 교육용이랄까 도시 내에서 진행되는 순환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었다. 마침 잘 알고 있는 후배

들과 뜻이 맞아 고등학교와 어린이집에서 시범사업을 실행하였다. 고등학교에서는 한 분 선생이 특별활동으로 학생들과 동산에 가축장을 만들어 청둥오리, 닭 등을 키우고 그 똥으로는 야채를 키우는 것이다. 물론 닭, 청둥오리의 먹이는 학교의 점심식사 후 남은 음식물이다. 어린이집에서는 옥상에 텃밭을 만들고 한편에서는 기러기를 키우고 한편에서는 기러기똥으로 야채를 키워 먹었다. 집들이 다닥다닥 붙은 곳에서는 청둥오리나 닭을 키우기는 시끄럽다. 기러기는 도사처럼 조용하다. 나는 우리 집 뒷편의 야산을 임대하여 닭을 키울 수 있는 후배들과 함께 농촌정착이 가능한 생활비를 벌 수 있을 것이란 꿈을 꾸며 키웠다. 그러나 상상과 실재는 달랐다. 2년째 들어서면서 남은 음식물이 쌓이고 퀘퀘한 냄새는 밤이 되어 바닥에 깔려 조용히 동네로 퍼져가니 동네사람들이 가만있을 리가 없다. 어느 날은 내가 없는 동안 동네노인들이 떼를 지어 우리 집에 찾아와 당장 그만 두도록 요구하였다. 동네에서 쫓아 내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었다. 뒷산에 키우는 것은 그만 두었지만 이 사업을 그칠 수는 없었다. 농도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너무나 확실한 수단으로 다가왔고 귀농자의 정착, 농촌살림, 도시민의 획기적인 환경의식의 성숙을 가져올 수 있는 매개란 생각은 더욱 커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후배들과 함께 가공공장을 만들기로 하고 강화도에서 남은 음식물 가공이 가능한 동네와 떨어진 깊은 곳을 찾아 다녔다. 돼지나 소 등을 키우다 비워둔 축사가 필요하였다. 마침 연리에 좋은 축사를 발견하여 주인을 설득해서 드디어 가공공장을 하게 되었다. 삼상전기를 끌어들이고 바닥은 새로 튼튼하게 콘크리트를 쳤다. 그런데 이게 웬 일인가? 동네주민들이 하지 못하도록 한다. 주민설명회도 하고 이 사업이 성공해야 농촌이 살게 된다. 동네에 이로움이 있다. 유기농업도 무상퇴비를 받아 할 수 있고 생산된 생산물은 아파트에 팔 수 있다고 해도 막무가내다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이다. 운영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고 이익의 일부는 동네 복지에 사용하자고 해도 결국은 통하지 않아 시설비만 허비하고 사업을 중지할 수밖에 없었다. 지금은 이미 성공

해서 강화도에 자리잡은 개인업체들의 퇴비를 우리농민들이 사용하는 정도에 만족하고 있다. 그러나 언제 다시 뛰어들이지 그것은 모르겠다. 이 때 체험을 통해 깨달은 내용이 있기 때문이다. 남은 음식물은 앞으로도 도시에서는 계속 나오게 될 것이다. 이것은 반드시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가장 바람직한 처리정책이 언젠가는 나와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다. 정부는 절대 시장경제에 편입시켜서는 안 되는 남은 음식물처리방식도 시장경제에 주로 맡겨 버린다. 개인의 사업으로 하도록 말이다. 그런데 진정한 처리방식은 역시 농도공동체형성에 맞추어야 한다. 농촌마을이 유기농을 하도록 하고 유기농 마을과 도시 아파트단지 등을 결합시키는 것이다. 지자체나 정부는 이를 잘 지도하고 지원하면 될 것이다. 과연 그런 날은 올 것인가?

## 5. 농민 조직운동을 시작하다

1997년 교동과 함께 5-6인이 5천 평으로 시작한 청둥오리 벼농사는 99년에는 45농가 5만여 평으로 늘어났다. 이를 '강화도환경농업농민회'라'는 조직으로 묶었다. 리단위, 마을단위 작목반이 그리 튼튼하게 건설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군단위 환경농업농민회를 조직한 것이다. 농민의 질적 성장도 중요하지만 양적 성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양적 성장은 어느 정도 농민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을 필요로 하였다. 우리나라의 면은 사업의 수립 및 예산결정의 권한이 없다. 군청을 상대하려면 양적 성장도 해야하고 군 단위 조직체가 필요하다. 그래서 강화도환경농업농민회를 조직하였다. 2003년 현재 90가구 11개 작목반 30만평의 벼농사로 성장하였다. 매년 지자체는 5-6천만 원의 친환경농업지원사업을 세운다. 교동은 15만평의 친환경농업시범마을로 발전하고 있고 도장리는 농림부의 4억5천만 원 친환경농업지구구성사업을 획득하여 생산기반 시설을 갖추 대세를 취하고 있다. 우렁이 농법도 등장하고 있고 쌀겨 농법도 등장하고 있다. 유기농업을 개척해온 신앙의 선배들은 정신무장을 핵심으



로 삼았는데 나는 애초부터 대중과 함께 보다 쉽게 할 수 있는 것을 모색하였다. 기계도 유기농을 보다 쉽게 할 수 있으면 도입하려 했고 지자체의 재정도 필요하다면 획득하고자 활동하였다. 농민들이 할 수 있는 유기농업의 기초가 마련되면 그 때 질의 문제를 씨름하고자 했다. 언제 과연 과감하게 질의 씨름을 하게될까. 25년이 다가온다. 24년에 기초를 마련하고 25년은 질적 성장에 대해 본격적으로 강화도친환경농가들과 씨름할 각오를 다져본다.

## 6. 에너지문제에 접근하다

나는 유기농업을 하겠다는 생각은 했지만 솔직히 에너지문제는 전혀 문의한이고 아예 관심이 없었다. 강화도에 와서 에너지문제를 21세기 화두로 삼게된 것은 오직 강화도에서의 체험 때문임으로 강화도에 감사한다. 한국전력은 석모도에 전국의 전력 1/3을 공급할 수 있는 화력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한 작업을 조용히 추진하였다. 강화도에서는 강화도 유사 이래 가장 많은 민간단체 40여 개 단체가 모여 석모도화력발전소 건설백지화운동본부를 결성하였다. 과거의 투쟁경력이 알려지고 대표들이 나를 찾아와 동참을 요구하여 개입하게 되었다. 한국전력은 건설유보 발표를 하였다. 단체들은 이제는 끝났다고 해산분위기가 조성되었다. 나는 해산해서는 안되고 다음을 준비하는 조직체로 오히려 새로운 재편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 계기를 활용하여 대안에너지까지 고민하는 한 단계 높은 차원의 연구모임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국전력의 재시도에 대한 대비와 새로운 에너지를 연구하는 조직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는 생각은 왔으나 강하지는 않아 해산되는 것을 그냥 지켜보았다.

그런데 2000년 여름, 어느 날 넙성리 주민들이 찾아왔다. 한국전력이 강화도 송전전력이 가까운 미래에 부족해 질 것이란 이유로 기존 전력 12배 상당의 전력을 보낼 수 있는 고압송전선로 건설을 추진한다는 것이었다. 넙성리에서는 고압송전선로반대주민대책위원회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었다. 나는 번뜩 치밀하고도 음흉한 한국전력

이 다시 석모도화력발전소를 재추진하는 것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는 전력을 보낼 송전선로부터 건설하고 기정사실화해서 다음으로 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거꾸로의 작업이 시작된 것은 아닌가 생각하였다. 만약에 그게 아니면 강화도의 미래의 전력 문제는 한전만이 결정할 수는 없다는 판단이 들었다. 강화도의 미래를 한전이 결정한다 말인가? 석모도화력발전소 재추진이든 다른 이유이든 개입할 것이란 확신이 왔다. 유기농업을 통한 강화도 생태섬 건설은 너무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에너지문제는 한번에 강화도주민을 묶어 주고 생태의식을 불러일으킬 것 같았다.

넙성리 마을은 북성마을, 구씨마을 2개의 자연마을로 구성되어 있는데 옛날부터 똑똑하다는 구씨마을이 반대를 주도하고 있었다. 그런데 반대를 하면서도 정말 전력이 부족하면 전력은 더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니 반대를 하다가도 자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자기동네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대안만을 생각하였다. 김포에서 강화로 고압송전선로를 끌어오면서 염해바다에 있는 섬에 변전소를 건설하여 거기서 전압을 낮추라던가 강화로 들어서자마자 해안가에 변전소를 설치하여 전압을 낮추라는 정도의 대안이었다. 그것도 이왕이면 구씨마을과는 떨어진 곳을 찾으니 북성마을 쪽이 될 수밖에 없었다. 강화도의 여러 단체가 참여하도록은 했으나 모두가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대안이 문제였다. 반대만 가지고는 힘이 나올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내놓은 대안이 한전과의 강화도 미래전력 공동조사였다. 한전과 강화도주민이 함께 강화도전력이 어떻게 부족한지를 조사하자는 것이었다. 대치선을 쳐야하는데 반대도 안되고 그렇다고 막 바로 대안에너지로 가자는 것도 안되고 강화도미래가 달린 문제를 한전에만 맡길 수 없고 공동조사를 하자는 것이었다. 공동조사를 하고 미래전력의 부족분을 분명히 하고 나면 그때 가서 부족분은 풍력 등으로 하자는 대안에너지문제까지 나아갈 수 있으리라 판단하였다.

강화군미래전력수립을 위한 군민대책협의회가 꾸려지고 한전에 공

문을 보냈다. 한전에서는 공동조사에 임하겠다는 공문이 날라 왔다. 그런데 한전이 자꾸 시간을 끌고 주민 공작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변전소를 주민 요구대로 짓겠다는 것이었다. 북성마을과 구씨마을의 대립이 첨예화되기 시작했다. 힘의 주력인 동네마을이 의심과 증오에 휩싸이고 힘이 빠지면서 한전의 의도대로 기존 계획된 송전선로가 건설되는 방향으로 사건은 마무리되었다. 이 때 뼈저리게 반성하게 된 것은 지도자나 활동가는 사태를 어떻게 끌어가야 할 것인가? 방향이 확실하게 서야하고 돌을 맞더라도 주민과도 과감하게 씨름해야만 주민을 바로 세워 나갈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 사건 이후에도 가끔 대안에너지 문제로 고민하는 때가 있다. 독일의 풍력발전 기술자가 와서 교동섬을 보고는 대단위 풍력단지 조성되면 서울까지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고 하는 소리에 나는 놀랐다. 그저 강화군만이라도 자급할 수 있는 전력생산만 생각했었는데 대안에너지가 그렇게 대단위로 생산될 수 있을 정도로 기술이 발전되어 있는지는 처음 알았다. 풍력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단계가 벌써 온 것이다. 고민이 되었다. 대단위로 서울까지 공급할 정도의 전력을 생산해야 하는지, 일정정도 지역에 국한한 소단위 대안에너지를 생각해야 하는지. 기업가는 분명하다. 풍력이 유리한 지역이 흔하지 않은데 최대한 전력을 생산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농촌에서 도시에 전력을 공급한다? 도시가 농촌에 의존하는 그 날이 올 것 같아 기분은 좋은데 잘 모르겠다. 이런 경험이 있어 부안 주민에게 진정으로 감사한다. 우리나라도 핵발전소 건설을 이제는 중지하고 줄이면서 대안에너지쪽으로 가야만 할텐데 부안 주민이 졌으면 너무 먼 미래로 그 기대는 던져 버렸어야 하는데 부안 주민의 치열한 투쟁과 승리로 그 가능성은 생긴 것이다. 이제 나에게는 농업만이 아니라 에너지 문제까지 분명히 해결해야만 하는 화두로 마음에 심어졌다.

최근에는 학교밥상살림운동에 뛰어들어 활동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별도로 기술하고자 한다. 農